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찬송가 524장(313)

- 1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 2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 3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 찬송가 220장(278)

-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받아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 성경봉독 ||

-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HAPPY NEW YEAR

2026 설날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서교회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예배 순서

개 식 사

오늘은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24(313)

기 도

성경봉독

요한복음 17:20-23

말 씀

“하나되게 하소서”

합심 기도

축 복 의 사

1.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2. 가족과 친지를 바라보며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찬 송

찬송가 220(278)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 도 자

다 같이

다 같이

말 은 이

다 같이

인 도 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Ⅱ 말씀 “하나되게 하소서”

설 명절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 한마디로 마음이 멀어지기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편안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이 기도 안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 됨은 ‘힘’이 아니라 ‘연합’에서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나무 막대를 주며 꺾어보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씩은 쉽게 꺾었지만, 묶여 있는 막대는 아무리 힘을 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옳다고 주장할 때는 힘이 약해지지만, 서로를 향해 마음을 모을 때 가정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 됨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서로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옳은 말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 됨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가정은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셋째, 하나 된 가정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 됨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보기보다, 우리의 관계를 보고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가정이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 말씀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연합해도 서로 품는 가정은, 그 자체로 복음이 됩니다. 설 명절에 모인 이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설 명절에 우리가 붙들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연합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됨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Ⅱ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질문 Ⅱ

1. 내가 가정 안에서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2.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나누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